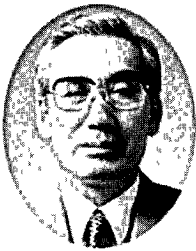


平壤 류경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행사에 다녀와서

黃 麟 九



지난 9월에 평양에 건축한 ‘류경 정주영선생체육관’ 개관식에 민주평통사무처로 부터 초청을 받았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당황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뻐다. 그동안 신문이나 TV를 통해 북한의 소식을 간혹 들었고 몇 년전 생전의 정주영씨가 소떼를 몰고 고향 이북으로 가는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보며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있다.

남쪽에서 태어나 소박하게 줄곧 살아온 내가 북한땅을 밟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가는 방문단 일원으로 말이다. 나는 흥분된 가슴을 진정하며 경북 대표로 간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이다.

10월 6일 아침 현대 계동사옥에 모여 7시 30분에 서울을 출발했다. 우리는 9시 30분경 도라산 검역소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남측 검역소와 북측 검역소에서 각각 검역을 마쳤다.

그리고 남북으로 이어진 황토길 위에 그어놓은 흰색 줄 하나를 넘어서니 그곳이 바로 이북 땅이었다. 그곳에 북측에서 대기시켜 놓은 관광버스를 타기 전에 우리는 불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았다.

논밭 둔덕 한쪽에 말뚝을 박아 흰색 천으로 가리개를 세우고 맨 흙바닥 위에 널빤지 서너개를 엮어놓은게 고작이었다. 남측 손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과장하지 않는 솔직함에 야릇한 기분을 느끼며 내가 탈 20번 버스에 승차했다.

현대 안내원으로 김정만 상무와 김상봉 과장 그리고 북측 안내원으로 민화협 의 유경배, 심영철 두 분의 안내를 받으며 개성을 향해 출발했다.

개성에서 평양간 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 도로로 군데 군데 울퉁불퉁 패어 있었다. 도로 양편으로 개성공단부지가 보이는데 현대장비가 더러 보이고 산은 온통 벌거숭이로 나무 한포기 보이지 않았고 산비탈을 일궈 만든 밭에는 짙마른 옥수수 대공만 보였다. 멀리 들녘에는 드문드문 검은 복장을 한 농민들이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개성을 거쳐 금천 평산 서흥 사리원을 지나 평양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가는 동안 내내 도로에는 화물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았고 19개의 터널을 지나는데 전기가 없어 전부 깜깜하였다.

평양 입구에 당도하니 조국통일 3대현장 기념탑이 보이는데 안내원의 소개가 계단이 40개 높이가 30m 화강암이 2,160개라 하였는데 2,160개의 화강암은 김정일 탄신기념일인 2월 16일을 뜻한다고 했다.

평양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대동강은 유행가 가사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으며 교량이 7개를 옥류교 청류다리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평양시내 거리는 김일성 광장 앞 통일거리가 8차선으로 2km라 했으며 광복거리 천리마거리 영웅거리 청춘거리 등 거리 이름도 다양하였다.

대동강변에 세워진 주체사상탑의 높이가 170m라고 하였고 천리마동상 인민문화궁전 노동신문사 개선문 등이 보였다.

우리 일행은 3분으로 나누어서 현대 가족과 이수성 민화협 공동상임의장 신상우 평통수석의장 국회의원 10여명 등은 김일성 초대소에 여장을 풀었고 SBS방송사 직원 기자단 연예인 농구단 등은 고려호텔에 그리고, 우리 일행은 양각호텔에 여장을 풀고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기념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체육관은 수만평이 되어 보이는 대지위에 웅장하게 건축되어 있었다. 객석이 12,000석 보조석 250석이 된다고 하며 현대 15개 계열사에서 공동모금을 했다고 한다.

자본과 기술은 현대에서 대지와 인력은 북측에서 제공하여 현대건설이 시공했다고 한다. 체육관 경영은 현대직원이 파견되어 공동경영을 한다고 했다.

고 정주영선생은 천추에 남을 큰 사업으로 평양에다 체육관을 세우므로 말미암아 남북 체육인들이 왕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통일로 가는 작은 기틀을 마련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념행사를 마치고 남북 예술인의 축하공연이 있었는데 남쪽에서 가수 이선희, 설운도의 열창에 이어 조영남이 북한의 인기가요 심장에 남은 사랑을 열창하여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바퀴달린 운동화를 신고 묘기를 보여 북한 관람객들을 놀라게 하였다.

밤이 되니 평양거리를 철훅같이 깜깜한 적막강산이었다. 신호등도 가로등도 보이지 않았고 사람도 차도 별로 볼 수가 없었다.

호텔로 돌아와서 우리는 뷔페로 저녁 식사를 했다. 메뉴는 우리 고장 상주의 뷔페식당과 비슷했고 특히 산나물국이 맛이 좋았다.

저녁 12시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북측 안내원들과 농담을 주고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북상주 상산한약방)